

## 일본기업, 4~9월기 경영실적 양호한 가운데 환차손 증가

2010년 4~9월기 상장기업 813개사의 경영실적이 양호한 반면 엔고에 따라 환차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이 기간에 환차손이 기업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환율이 1달러=80엔대에 진입한 것이 6월 이후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나 향후 엔고가 지속될 경우 2011년 3월기 결산시 기업수익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

- 일본 상장기업 813개사의 4~9월(중간기) 결산 결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반면 엔고에 따라 환차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- 도쿄쇼코리서치社가 10월 29일 현재 2010년 4~9월기 결산실적을 발표한 상장기업 813개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

〈표〉 2010년 4~9월기 결산 현황

(단위: 백만 엔, %)

	매출액	영업이익	경상이익	당기순이익	환차익	환차손
2010년 4~9월	131,076,139	9,116,117	8,229,450	4,684,912	35,565	269,549
2009년 4~9월	116,666,219	4,912,658	3,782,709	1,932,202	45,017	117,661
2010-2009 차액	14,409,920	4,203,459	4,446,741	2,752,710	-9,452	151,888
전년동기대비	12.4	85.6	117.6	142.5	-21.0	129.1

자료: 東京商工리서치(2010.11.09), 「上場會社813社 2010年9月 中間期 決算」.

## □ 상장기업 70%에서 영업 및 경상 이익이 증가

- 매출액, 영업이익, 경상이익,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2.3%(131조 엔), 85.5%(9.1조 엔), 117.6%(8.2조 엔), 142.5%(4.7조 엔) 증가를 실현함.
-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각각 70.4%(813사 중 573사), 70.1%(570사)였으며, 두 가지 모두 증가한 기업은 67.7%(551사)
- 이러한 수익개선은 수요회복과 경비절감 등의 요인에 크게 기인

## □ 반면 환차손 기업 수 및 금액은 증가

- 조사대상기업(813사)의 환차익(355억 엔) 대비 환차손(2,695억 엔)은 7.5배에 달함.
- 전년동기대비 환차익을 실현한 기업수는 -49.5%(107사→53사), 금액은 -21% (450억→356억 엔)로 감소한 반면, 환차손을 계상한 기업수는 44.1%(224사→323사), 금액은 129.0%(1,177억→2,695억 엔)로 증가함.
- 환율추이: 2009년 4~9월 1달러=89~98엔, 2010년 4~9월 1달러=83~93엔으로 절상(2010년 연초대비 11.10 현재 엔화 11.6%, 원화 4.6% 절상)

## □ 향후 엔고 지속에 따른 기업수익 악화 우려

- 2010년 4~9월기에 환차손이 기업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환율이 1달러=80엔대에 진입한 것이 6월 이후였기 때문인

것으로 판단되나, 엔고가 지속될 경우에는 2011년 3월기 결산시 기업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.

- 실질수출(통관수출액을 수출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지수화)은 4~6월에 전기대비 +9.6%로 증가한 반면, 7~9월에는 -0.4%로 감소로 전환
- 4~6월 수출액은 전기대비 6.4% 증가(17.06조 엔)했으나, 7~9월은 -0.2%로 감소(17.03조 엔)
- 일본은행은 「11월 금융경제월보」에서 경기현상에 대해 ‘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잠시 멈춘 것’으로 진단하여 2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하향조정했으며, ‘당분간 성장속도가 둔화된 이후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’으로 전망

#### <참고자료>

東京商工リサーチ(2010.11.09), 「上場會社813社 2010年9月 中間期 決算」.

日本銀行(2010.11.08), 「金融經濟月報(2010年11月)」.

財務省貿易通計(<http://www.customs.go.jp/toukei/suii/html/time.htm>).

Bloomberg.